

2013년도 학술프로그램 워크숍 II

2013. 10. 12, 13:00~17:00

송도해양레포츠펀터 2층

사회자 : 안원현, 발표자 : 전시감독 박태원

토론자 : 사무국장, 정형탁, 류병학, 이영준, 이준희, 심준섭, 손몽주

사회자

우선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전시감독께서 이번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20~30분에 걸쳐서 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전시감독이 발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래는 태풍이 없는 해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바지에 태풍을 맞으면서 계획보다 일찍 전시를 종료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여느 해보다도 짜임새 있는 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평가회가 지닌 중요성은 이 자체가 마무리 하는 그런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다미술제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로, 이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전시를 보면, 첫 날 오픈은 요란스럽지만은 끝날 무렵에는 그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데 바다미술제가 지금까지 해 온 이 평가회라는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때로는 이상한 문제점은 짚어 나가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있어서 더욱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 토론회가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토의하실 것 같은데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들 해주시고, 바다미술제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특이한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진지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감독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바다미술제에 참가해 준신 작가 두 분을 이번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손몽주 작가님, 그리고 심준섭 작가님입니다. 그 다음 멀리서 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간컨템포러리 아트 저널의 편집, 정형탁 선생님, 월간미술 수석기자 이준희 선생님, 독립큐레이터 류병학 선생님, 김해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이신 이영준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고생 많이하신 전시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시감독

2013바다미술제 출품작품에 대해 간략한 설명에 덧붙여 기획배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With 송도 : 기억 · 흔적 · 사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도’라는 장소성은 이번 미술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특정 장소라는 공간적 제약이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장소성’을 넘어 바다미술제라는 보편적인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불어 닥친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 국제화의 바람이 자칫 국적없는 유행의 따라잡기가 될 우려를 안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송도’라는 강한 로컬리즘에 기반하는 이번 바다미술제는 국제미술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송도 해변에 모인 세계의 미술인들이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동선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남기게 될 흔적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라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도라는 장소, 바다와 해변, 그리고 삶이 녹아 있는 그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물성을 띠며, 現存(현재, 여기에 존재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이며, 미래로의 지속이기도 하며 바로 그 곳에 세계 11개국 34점의 작품이 놓여 졌고, 작품 하나 하나가 지닌 각각의 물성이 송도라는 공간에서 어우러져 바다미술제라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바다미술제는 ‘grade up’, ‘scale up’, ‘build up’을 목표로 미술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작품 및 작가를 선정하여, 자

연경관에 조화로운 작품의 배치와 설치에 역량을 다해 준비하였고 뿐만 아니라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이한 송도해수욕장과 함께하게 되는 작품은 스스로 하나의 미술작품을 넘어 송도의 일부가 되어 송도를 찾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환경미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2013바다미술제에서는 26년을 맞이하는 바다미술제가 걸어온 길을 자연스레 회상하며, 기억하며 이번 바다미술제가 남기게 될 흔적을 따라 제 각각의 이야기들을 남길 것이며,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공간을 따라, 그리고 시간을 따라 준비된 이번 바다미술제는 시간과 공간의 접유물인 미술작품이 주는 존재감으로 관람객들과 마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작품이 작가의 작업실을 벗어나 특정한 장소에 놓여지게 되면, 그 공간과 함께 존재하게 되며, 그 공간이 원래부터 지닌 역사와 사연도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이하며 지니고 있던 수많은 사연들과 이야기, 그리고 환경은 올해 26년된 바다미술제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청된 작품들은 그러한 사연들을 담고 있거나, 그 사연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의 바다미술제는 송도를, 그리고 바다미술제를 찾은 사람들의 추억(기억)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전시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바다미술제가 지향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흔적'입니다. 주제가 던지는 스토리텔링에 따라 장소의 특수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도, 향후 지속 가능한 바다미술제의 정체성을 만들어 '송도'라는 장소의 특별함과, 바다미술제가 주는 대중적 향유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스토리텔링이 주는 동선을 따라 해당 공간에 최적화된 미술의 장르와 작품을 선정,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의 기억에 남는 역대 최고의 바다미술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이 주는 스케일과 존재감, 그리고 주변 경관에 최적화 된 배치 등이 주는 의미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바다미술제를 찾는 관람객의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흔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물성을 넘어 송도에서 만난 바다미술제와 작품을 대하고 제 각각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을 기대합니다. 총 11개국 34점의 작품은 그 자체로 스케일과 질적 수준이 있는 현대미술의 정점을 보여주고, 단순한 관람 이상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재해석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여 단순 구경이 아닌 참여형 미술축제로 전개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 속 의미 있는 바다미술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기 위해 준비된 이채로운 미술축제에 명확한 주제의식과 스토리텔링을 더하였고 바다미술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된 이번 바다미술제를 계기로 지역기반을 넘어서는 국제적 규모의 미술축제로 발돋움하는 현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2013바다미술제의 마지막 작품은 결국 관객이라 생각합니다.

전시준비 과정에 있어서 바다미술제는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전시준비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약 1개월 가량 집중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진행된 바다미술제 국제공모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26개국 109점이라는 접수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과년도 대비 대략 두 배 가량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것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관과 미술대학을 겨냥해 추진한 전략적인 홍보 결과로 예상되었으며, 한편으로 그 동안의 바다미술제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류와 3D 드로잉으로 진행된 5월 22일 서류 심사에는 야외 전시의 특성에 근거하여 전시장소와의 조화, 작품의 내구성과 안정성, 독창성을 우선으로 작품을 선별하였으며 조형물, 영상 미디어 설치, 사진 등 장르간의 균형 있는 분배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개국 4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약 1개월 가량 모형준비 기간을 주었으며 드로잉 자료에서 우려되는, 불분명한 작품제작 및 설치방법에 대해 후보 작가별로 세부사항을 질의하였고 구체적인 답변들은 최종 모형 심사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2차 모형심사는 6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드로잉 이미지와 모형작품 사이는 간극이 존재하였는데 해외의 경우 모형작품의 제작 뿐 아니라 운송기간까지 감안해야하므로 제출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이 따라 완성도가 떨어졌으며, 일부 작품들은 보다 섬세한 출품작품 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모형심사는 이번 전시의 주제와 장소에 적합한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고 심사위원들끼리 각 작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현가능성,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며 개별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종 7개국 20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특선 후보작들로 작품 설치완료 후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이 선별되며, 공모작가들은 시상금으로 작품의 제작, 운송 및 설치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며 특선작 기준으로 일괄 오백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초대작가의 경우 전시기획 방향과 장소성에 적합한 작가들을 연구하고 섭외하는 기간을 2개월가량 가졌는데 국내작가들의 경우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품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출품 가능한 작가 후보리스트를 만들고, 필요시 2차 미팅을 통해 2013바다미술제 출품작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거

쳐 국내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경 국내작가들의 작품은 거의 확정되었으며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작품제작에 임했으나 해외작가들의 경우 현지의 정보, 작품의 컨셉, 조직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이해와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8월 중순께 모든 작품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초대작가들은 공모작가와 달리, 작품제작의 특성에 따라 제작비를 차등 지원받으며, 최종 출품작품 제작에 임하기까지 끊임없는 감독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작품실현을 위해 조직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3바다미술제 전시준비를 위해 전시감독과 이하 전시팀, 설치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전시팀은 공모와 초대작가 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코디네이터 3명과 업무를 총괄하는 전시팀장 1명으로 구성되어 전시준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감독과 함께 일하며 출품작가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계약 체결에서부터 제작 및 설치에 따른 현장지원을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반면 설치팀의 경우, 풍부한 현장경험과 대처능력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작품설치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0일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품설치 준비를 위해 최소 10일전 설치팀장 1명과 팀원4명으로 이루어진 설치팀을 구성하였는데 작가별로 작품의 특성과 설치상의 문제점, 지원장비와 인력 등과 같이 세부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작품설치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9월 11일에 거의 모든 작품이 완성되었으나, 리우 보춘의 경우 해상 운송된 작품이 주말에 도착하여 통관과정에서 1.5일 정도 지체되면서 지원인력과 중장비 투입 시간을 늘려 지원한 결과 개막에 차질 없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공모 작품들은 지원조건에 근거하여 작품들을 작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에 필요한 중장비 및 보조 인력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작가의 경우는 현장제작 작품 3점에 대해서는 조직위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계약하고, 작품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크레이그 코스텔로인데 다행히 컨테이너와 페인트는 각각 한진해운, 조광페인트에서 협찬을 통해 지원받았고, 작품의 특성상 현장제작을 위한 중장비 임대료가 재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이의 경우 8월 중순부터 약 25일간 부산에 체류하면서 작품을 직접 제작, 설치한 작가로서 부산 최초의 레지던시 공간인 '홍티아트센터'에 입주하여 그곳에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 작업장 역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면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후미히코 사노 역시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작가들은 신작제작 소요비용 검토에 따른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작품제작에 드는 일부 재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계약 체결하여 진행되었고 또한 작품 설치에는 보조 인력을 최대 2명씩 지원하나 작품설치에 애로점이 많은 특수한 경우 설치팀에서 직접지원을 하거나, 탄력적 인력배치를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9월 14일 전시개막 이후 전시운영을 위해 설치팀과 전시운영팀이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져 업무를 분담하였고, 야간 근무조는 오후6시부터 오후12시까지 설치팀 1명과 전시운영팀 1명이 조를 이루어 전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의 경우 종합안내소 운영인력 1인을 제외한 13명이 전시장을 전체 4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전시운영을 했습니다. 금, 토, 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구역별로 1명씩 교대로 휴무를 가지고 식사 및 휴식시간 역시 일정에 근거한 운영하였고 자원봉사자는 그날 그날 근무인력이 부족한 구역에 배치되어 운영스텝 역할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전시를 마무리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올해는 운 좋게도 태풍에 의한 피해 없이 무사히 전시를 끝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전시마침바지에 24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전시를 종료할 수 밖에 없어서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본래 오늘로 일정을 잡은 이유가 전시 종료전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었는데 태풍으로인해 조기 종료되면서 자연경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발표에 이어 참여작가 두 분께 소감을 일단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감상하고 소통을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고, 작가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몽주

공모에 지원을 하면서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사실 또 제가 2008년도에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에 초대작가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 제가 직접 지원을 하면서 공모작가 입장이 되면서 전시에 참여하는 기분이 조금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전시나 이렇게 작품 한 점 한 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 작품이 모두 우수하고 좋았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그것들이 다른분들에게도 충분히 읽히지 못했다는 그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과년도에 비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자

이번 워크숍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3부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번 행사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홍보와 마케팅을 했는가'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2부에서는 '이번 행사의 전시기획이나 연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다미술제가 개선해야 할 방향과 또 그런 실천과제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테이프를 끊어주실 분을 소개를 해 드리면 2006년도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전시감독을 역임하셨고 2011년도 바다미술제 전시기획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류병학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류병학

개인적으로 조직운영체계를 봤을 때 2년의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 형식인데 감독선정을 조기에 선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바다미술제는 부산비엔날레에 비해 예산이 적지만, 사실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미술제의 모든 작품은 신작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감독을 가능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빨리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뭐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보에서 사전 사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다미술제 홍보를 봐온 상황은 사전은 아주 좋았던 거 같아요.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다뤄지고 그런데 오픈된 다음에 나온 기사들은 예를 들자면, 페인트 협찬, 셔틀버스은행, 전시조기 종료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 점차적 홍보라고 오픈 전에 어떤 식의 소스를 언론에다가 홍보를 할 것인가? 개막식 전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개막 이후 사이 사이는 어떤 식으로 홍보 전략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 했으면 합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바다미술제 전체예산이 육억육천정도 됩니다. 사실 야외전시 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이지요. 작가 작품 관련하여 드는 예산이 약 2억4천정도밖에 안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작품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바다미술제가 가진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에 드는 예산은 일억천만원 가량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공모를 꼭 해야 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류병학 선생님께서 2006년에 바다미술제 감독을 역임하셨는데 그때 전시기획자의 역할이나, 전시기획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전시기획을 응용해 간다면, 공모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지는 이번을 계기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기획이 강화되는 만큼 공모를 지양해 볼 필요도 있다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정형탁

공모와 초대는 각 각 장·단점이 있는 걸로 얘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공모는 아무래도 지역에 기반한 젊은 작가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인 것 같고, 초대의 경우는 기획자의 영향이 발휘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좋다는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공모작가, 초대작가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여쭙보고 싶은 것이 제가 2008부산비엔날레 부산조각프로젝트 전시팀장을 했었는데 당시 기억으로 작품설치 과정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혹시 작품 설치시 현장인력 지원이 잘 이루어 졌습니까?

손몽주

저는 작품 설치기간 10일 전 기간 동안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비오는날, 장비기다리는 시간들을 빼면 5~6일 정도 되고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짧고 촉박한 정말 긴박한 시간이고 설치기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명의 자원봉사를 지원받았는데, 사실 공모작가로서 최대의 지원을 받았습시다만,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만 도와줄 수 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작가분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작비원비로 주신 돈은 재료비로 모두 소진되는 것이고 보조 인력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등 타이트했습니다.

심준섭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작품을 작업실에서 거의 다 만들어 와서 설치도 이틀만에 끝냈고, 제가 데리고 온 내부 인력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형탁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텍스트 상으로는 설치팀원 4명, 설치팀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품 34점에 인력, 설치팀이 5명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서 선후배 아름아름 알아서 품앗이처럼 같이 했었는데 그런 인력들을 미리 좀 배치를 잘 하는 방법이 없을지 생각됩니다. 감독님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준비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기저기 문제 생기고, 서로 신경 곤두서고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축적된 경험들은 쌓이지 않고 허탈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 사무국에서 계속적으로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경험의 축적, 노하우의 축적의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도 고민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희

지금 순서상 주제가 조직과 운영에 관련 된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조직과 운영, 특히나 조직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여를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구요, 굳이 따지자면 운영에 포함될 수도 있는 이야기 일텐데 제가 가장 궁금하고 좀 헛갈리고, 좀 황당한 상황이 적어도 이 자리 토론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유인물에서는 학술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워크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워크숍이 학술프로그램인지, 워크숍인지, 토론회인지, 어떤 평가 및 비판의 자리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여러 패널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나누는 이야기의 목적이랄까요? 그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크게 봐서 바다미술제의 운영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미진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장님 앞에 계시긴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부산시 문화정책 관련자라든지,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겠지만 이 송도지역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오늘 이 논의될 이야기들이 피드백되어 전달되고, 또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회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는 전문적 워크숍으로 기획되었지만, 사실 주제는 바다미술제를 평가해서 다음에 좀 더 나은 전시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보다는 일단 오늘은 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조직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무국장

먼저 그 오늘 이 자리의 취지는 이제 이준희 기자님 말씀해 주신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다미술제를 송도에서 두 번째 개최하면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그게 강조된 전시였습니다.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전시감독제를 새로 도입했는데 부산비엔날레에서는 감독제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외부의 해수변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있어서 전시감독제가 필요한가, 기획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냐가 고민되었습니다. 조직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공모하고 초대부분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관람석을 마련했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에서 조직이든 예산이든 문제점이 진단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고 나와서 다음 전시에 꼭 반영될 수 있어야 있어야만 이 슬림화된 조직에서 제대로 조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서 다음에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이 돼야겠다. 그게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산시나 관계된 분들이 나와서 듣는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인 근거들에 의해 예산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따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직부분은, 저희가 지금껏 바다미술제를 10회 가량하면서 거의 유사한 진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설치 인력의 부분은 설치팀은 별도입니다. 전체적인 설치를 위한 장비, 작품, 일정조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손몽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치를 위해 각 작가별로 지원되는 인력은 그 기간에 한해서 모집을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저희는 현재 학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학생, 학부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서 기성 작가와 작업하는 과정의 경험들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잘 참여를 안하고 그리고 요즘엔 학교가 외부 활동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감독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준희

간단한 궁금증을 여쭙보자면, 이번에 고생하신 전시감독님 선정하는 과정이 이전에 있었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 전시감독이 다음해에 또 연임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라면, 물론 매번 선정위원 또는 심사위원들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박태원 감독님은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좋은 성과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다른 패널리스트들 공감할 하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비판적이고 뼈아픈 얘기만 할 것 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오늘 감독님께서 듣고 다음에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국든 조직위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달이 되긴 하겠으나 좀 생생한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오늘 신임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참석해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권고 있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병학

처음에 행사조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전시기획연출, 개선방향 추진과제로 토론하기로 했는데 사실 모든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제 구분 없이 편하게 토론합니다.

*

이영준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시의 전체예산이 6억6천정도구요, 근데 2억정도 경상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4억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3천인데, 일단 예산상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한 번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바다미술제가 전시감독제를

통해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상섭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전시기획자의 방향과 공모전은 굉장히 대치되는 성격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국제공모전이기에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공모전이라는 자체가 또 최근에 위상이 많이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공모전이라는 제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한 장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단점에 비하면 장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시감독

이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 공모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빨리 선정해서 기획 의도나 주제를 주어 국제공모를 시행함으로써 바다미술제가 다른 전시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제도하에서도 공모와 초대는 병합해야 합니다.

사실 송도는 전시장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약 880m 백사장으로서 상당히 큰 작품을 모아둬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다미술제가 기존의 해운대 정도의 그런 스케일 있는 곳에 작품을 설치할 했을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감독을 맡으면서 어떻게 바다미술제가 달라져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기존의 전시원형복구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전시감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하게 되면 스케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년도 감독님들 계시지만, 그러다보니까 주제가 왜곡될 수 있겠고, 또 전승보 감독과 같이 실내전시 중심으로 하게되는 상황들. 지역미술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바다미술제를 나름대로 기획했습니다. 저는 공모제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산만의 미술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제는 그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물론 이게 제도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바다미술제라는 것은, 특히 바다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다미술제를 환경미술제로 이해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송도라든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미술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바다미술제가 좀 그래오긴 했지만 그런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모제도 같은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획자가 제대로 된 전시를 보여 줄 수 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바다미술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앞서 2006년도에 류병학 감독이 기획한 그런 전시형태가 개인적으로 좀 잘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나올수 있으려면 바다를 미학하는 환경 미술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감독

사실 바다미술제라는 특성이 있지만, 어디서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부산의 트렌드로 키울 수 있는 바다미술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학 감독의 전시는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미술제라는 것은 부산만이 할 수 있는,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희

본의 아니게 박태원감독님 얘기에 조금 반대의견을 드리는데요, 공모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모전이라면 결국 상의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이라고 하면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오래 돼서 상의 권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최근 경향을 보면 상금을 많이 줘서 권위가 단기간 내에 축적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다미술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와 상관없이 기금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른바 소액지원, 가급적이면 숫자가 많은 작가들한테 주자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른바 뭐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작가들은 적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금을 많이 마련해주자로 될 수 있는데, 이런 전제로 봤을 때 올해 이 바다미술제 공모전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의 권위. 물론 역사가 필요하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올해 같은 경우 상을 받은 작가 입장에서 본인의 커리어도 없고 굉장히 찝찝한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공모의 대상을 전시감독의 기획력과 차별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학생 상대로 개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수상자의 많은 사람들이 학부 학생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상금보다는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경력을 쌓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차이를 두고서 공모의 대상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탁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전을 하는 것은 대학의 조각공모전도 아니고 말이죠. 참고로 포스코 스틸아트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잖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기획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사실 초대와 공모작품의 질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고, 부산에서 하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전시라고 하지만, 전시감독의 개인역량을 발휘한다면 꼭 어떤 장소특정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형식들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자

아까 이영준 선생님께서 환경미술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정형탁

사실은 이번 작품들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build up, grade up, scale up, 모두 이렇게 큰 작품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인근 빌딩이 더 큼니다. 아무리 큰 작품을 갖다봐도 동일한 크기로 나열된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점에 동일한 명품들이 나열된 것 같아 보입니다.

사회자

제가 듣기로 지금의 바다미술제 성격을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게끔 기획전, 공모전을 고려하면서 작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준

물론 이렇게 환경미술제적인 측면들이 있겠지만 바다미술제가 가장 지향해야 할 부분들은 장소의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론 손몽주 선생님 작품과 몇몇 작품들이 송도를 담고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다나 송도, 특히 송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바다라는 개념 위에 조각을 놓아두는 그런 환경미술제여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공모전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미술제에서도 다양한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전시기획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획들이 실험되고 시도되는 그런 미술제로 나아가야 특색있는 미술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을 배경삼아 진행되는 환경미술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미술제 가운데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면에서 바다미술제가 기획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2006년도, 그때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바다미술제를 보여주신 감독님께서 바람직한 바다미술제의 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병학

제가 그때 당시 기획할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차별화되는 아이টে으로 무엇을 낼 것이냐 그게 우선 첫 번째 중요성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출해 나갈 것이냐가 고민이었습니다. 그 동안 해 온 자료를 스터디하면서 전반적인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떠올렸던 것이 공공미술이었는데, 당시 그런 공공미술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로 들어가자니 이제 환경조형물이라고 그 안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 문제점의 원인은 파이였다. 파이는 너무 작운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조형물 하나 세워놓으면 땅을 점령하는 형식이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파이를 키우고, 실용적이면서, 현대미술의 흘러온 과정에서 일상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이가 접목될 수 있는 개념이 될까하고 생각을 하다가 'living furniture'를 접목시킨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공모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선정되기 전에 공모전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제 기획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신청되는데 대략 난감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실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나 연출관계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전시 감독들은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시감독한테 전시기획을 맡겨서 전시기획을 살리겠다는 의도이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껏 전시감독한테 권한을 쥐어주고 그 예산안의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하면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젊은 작가들은 얼마든지 섭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기획에 대한 나름의 그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시감독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다미술제가 올해 26년째인데 그 역사성은 무지 못합니다. 이번 국제공모에 총26개국 109점이 참여했습니다. 비엔날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다미술제가 창립된 취지가 뭔가요? 이 전시는 실내에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 설치문제, 하나도 문제없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거의 다 되었고,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애초에 공모작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도만큼 지원되었고 초대작가도 계획대로 진행을 했었고, 철수도 하루 만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운영스텝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형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서로서로 돕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바다미술제가 가지고 있는, 87년부터 해온 이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미술인들이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바다미술제 원형복구를 해라”. 전시컨셉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다릅니다.

사회자

심준섭 선생님 공모작가는 아니신데, 초대작가로서 이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준섭

제가 봤을 때는 지역미술 활성화와 참여작가 유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제가 시행됐기는 하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제가 섭외될대만 해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작도 말씀하셨는데, 제작 자체만 해도 서너 달 정도 필요하고, 또 그 작업만 하면 되는 작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감독제 감독제에 대한 기간과 재원확보가 되어야 먼저 되어야, 감독의 기획성과 같은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몽주

저는 2008년도 바다미술제 초대작가, 2013년도 바다미술제 공모작가 이렇게 참여해보면서 양쪽의 장·단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좀전에 미술전공자로서 올해 작품이 모두 좋았던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은 단지 제 취향이 다 공모작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깃발, 대나무 작품, 그리고 애착을 가진 제 작품. 어떤 한 분이 “복불복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공모수준이 떨어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 앞으로 국제전시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면, 기획자의 조절이나 지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등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이렇게 꼭 공모의 역사를 살려 지속시키는 것도 좋다면 공모의 수를 줄이고, 공모 안에서 20명 중에 1등 2등을 뽑기보다는 공모에 참여를 한 것만으로도 모두 수상된 느낌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 안에는 들었지만 1등 안되니까 기분이 그런, 느낌을 작가들이 가지기 보다는 공모의 최종 인원을 3명 내지 5명으로 대폭 줄여 그 작가들도 초대작가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모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보고, 현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을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는 것,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미술제를 공모제를 유지하면서 감독제를 두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모심사를 어떻게 했었냐면, 전시감독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참석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서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나아가야 할지는 간략하게는 알 수 있지만, 초대작가의 작품과 공모작가의 작품들이 연계되어 전체적인 조화에 대한 구상은 실제로 전시감독이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비엔날레는 전시감독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바다미술제에서 공모전을 두고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시감독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공모제로만 진행하고, 설치할 수 있는 팀만 있으면 되지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제를 시작해서 전시감독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시감독이 특정 작품들을 선정해서 출품시키겠다면 이런 경우는 작품리서치, 작가리서치 과정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시감독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 전시과정에서와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시감독

사실 제일 문제는, 감독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독을 먼저 뽑고, 전시기획서에 준한 내용대로 공모를 하고, 그러면 저기에 맞는 작품들이 들어오고 초대작가와 조화롭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감독의 기획서가 빨리 나오면 공모 기간을 통해 저기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대작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모제에 폐단이나 타당성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바다미술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몽주 작가가 말씀하신 현장성, 그런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정 작품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수준을 높이고, 또 끝날 때쯤에 공모 작품에서 한 명 정도 선택해서 시민들에 의한 최고상이나, 다음에 초대작가로 초청되는 등과 같이 방법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감독제도아래에 공모제도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일단 감독을 빨리 선정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감독 책임하에서 공모전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다섯 명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사회자

감독이 하면, 다섯 명의 심사위원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네

전시감독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하자고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저는 87년부터 이어온 성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감독이 전체 작품을 이러이러한 평가로 작품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지나가면서 “이 작품 괜찮네” 이러면 그냥 그것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류병학

그것보다 더 신랄한 건 뭐냐면, 국제행사의 경우 심사를 해보니 나라별로 한점 씩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작품만 놓고 심사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지만, 국제심사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함이 많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써내서 다수결로 표가 많이 나온 것을 뽑

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 상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적 심사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전시감독

그 부분은 바다미술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른 국제행사에는 최소 몇 개국 이상 되어야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있습니다. 단지 바다미술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가 수 맞추기 싫었습니다. 조직위에서 국가 수를 맞춰야 한다는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전혀 언급하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공모 부분을 차별없이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형탁

박감독님 자꾸 아까 원형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바다미술제의 원형은 어떤 것입니까?

전시감독

바다미술제 87년도에 만들면서 미술인들 중심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젊은 작가들, 현재의 우리 선생님들이 위주가 되어서, “백사장에서 한 번 축제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공모제나 초대가 병행하여 시작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초대작품들은 구조적인 덩어리 작품을 주로 두는 것이었고 공모작가들은 설치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형탁

그런 원형에 대한 것, 원형에 대한 갈망? 복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조각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다조각전, 바다미술전 이긴 하지만, 과연 전시기획자가 현대미술, 당대의 미술을 바다라는 환경에서 한 번 담론을 이야기 해보겠다라고 하면 조각, 건축, 미디어 모든 게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원형에 대한 것이 강하고 부산의 지역작가들이 만들었다는 역사성을 주목하다 보니 부산작가 및 부산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외부에서 하더라도, 바다미술제는 부산에서 해보자 라는 내부의 그런 암묵적인 동의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되는 것 같고 현대미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회귀를 강조하니까, 큼지막하고 조각적인 이런 작품들이 많아서 현대미술의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시감독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조각적인 것만 있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작품, 체험하는 작품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취지에 맞게끔, 기획 의도에 맞도록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구요.

정형탁

공모요강에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전시감독

규정이 없습니다.

손몽주

5m 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시감독

5m라는 기준이 평면일 수도 있고, 제임스 잭의 경우는 5m라는 기준이 안 맞지요.

사회자

그것을 감독이 정하셨습니까?

전시감독

그것은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전시감독

5m 라는 기준은 평면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높이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형탁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모전은 보여줘야 하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제임스 잭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작품들이 있는데

전시감독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전시감독이 빨리 정해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박태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원형이라는 것이, 사실 원형의 출발은 조각가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넓게 얘기해서 화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전시감독이 조각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전시감독 선정과정에서 고려될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전시감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형탁

지금은 매년 행사를 하겠습니까? 통합되었다가 나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시감독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바다미술제 독립을 상당히 오랫동안 요청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어떻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게 되었는데 지역에 준해서 일하지 않았습시다. 단지 장소성 때문에 현지작가들이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그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부산작가라고 해서 지역 안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바다미술제를 별도로 독립시킨 것은, 바다미술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부산비엔날레가 3개의 전시로 나뉜 것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시기획이 전시감독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지역미술계에서는 바다미술제를 부산비엔날레에서 하고 있었고 부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전시인데 여기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논의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비엔날레가 전시되지 않는 홀수 해에 전시를 하자고 해서 별도 독립 브랜드로 되었는데 이것을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시감독제가 나온 것이고 전시감독제가 도입됐다는 것은 전체 바다미술제의 기획의 의도를 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시감독

사실은 부산비엔날레 3개 전시의 성격이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바다미술제가 독립된 계기입니다. 바다미술제 성격이 없다는 거죠. 지역에서 계속해서 비엔날레를, 바다미술제를 보아 온 입장에서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한건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사회자

지금까지 감독을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감독 책임하에서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 했었습니다. 감독이 있으면 기획전 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공모전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준

아까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감독이 빨리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모전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심사위원들이 모여 공모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전시감독이 설명했던 어떤 주제나 그런 것들이 묻어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전시감독이 일찍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모제 자체의 문제는 많습니다.

사무국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모 작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공모작가의 경우, 현장에 와보니까 잘 안 맞는 설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감독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되었던 것 같은데, 작품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충분히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실행의 문제입니다.

전시감독

공모작가에게 500만원 준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사무국장

500만원 준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 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전시감독

사실 예산문제인데, 사무국장님 얘기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여러 명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이미 기획서가 나와 있으니 기획서에 준해서 심사를 하는데,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성, 특히 이 전시가 실내전시가 아니라 야외 바다의 해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전시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 사항을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결들여서 적용하는 것이지 감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조직입장에서는 공모제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500만원의 정해진 금액과 2명의 설치인력을 지원해주고,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으로 보자면 공모전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초대작가는 왜 다른가?가 문제입니다.

전시감독

지금 공모작가 거의 대부분이 젊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거의 30대가 대부분이구요. 이게 최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있고 경력 있는 작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국제행사니까 국가 수도 맞춰야 되겠지요.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본다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독이 일찍 선정되어야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이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든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전시가 진짜 바다미술제 같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아니, 제 이야기는 공모제로 전부 다 뽑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시감독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모제는 거의 30대의 젊은 작가들이고 초대작가 부분은 전시의 전체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40~50대의 검증된 작가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서울서 내려오신 기획하시는 분들은 초대작가들 작품이 좋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모작가 작품이 더 좋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부산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타지에서 꼭 초대작가를 데려오는 것들은 전시성격이 없

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바다미술제의 전시성격을 구축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형탁

저는 다양하다라기 보다는 바다미술제가 다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전으로 젊은 작가들도 잡고 초대전으로 기성작가도 잡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모제로 하려면 상금을 1억을 걸고 공모제로 하든지, 아니면 전시감독제로 해서 현대미술의 어떤 담론들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보이든지 그래야 이슈를 침예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한 번 여쭙볼게요. 기획자를 두고 진행한 이번 전시와, 지난번처럼 기획위원회로 진행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시감독

2011년 바다미술제의 경우 기획자가 없으니, 결국 주인이 없으니까 한 달가량 전시하는데 관리자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모작품으로 크기를 5m로 한다고 계획서에 써놓고는 와서 보면 2m짜리 작품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감독제를 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내 전시같은 경우는 기획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 됩니다. 작품을 뽑을 때 감독이 컨셉트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 달 동안 야외에서, 태풍 등을 고려해서 전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시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조적인 작품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 거리가 없으면 오질 않습니다. 볼거리들이 다양하게 접목이 되어야 하고, 어차피 저는 부산의 미술인 중 한 사람으로서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바다미술제의 성격은 이런식이면 좋겠다는 주변의 건의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정형탁

포스코 스틸아트 마지막 회를 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감독제. 말이 감독이지 진행사항 체크, 외부 디자이너랄까요? 공모를 담당하는 포스코에서 외주를 주셔서 그쪽에서 저를 뽑은 것이지요. 심사일정 잡고, 심사위원들 뽑고 그래서 심사를 진행하고, 상금을 주고 말이지요. 굳이 공모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시감독

지금 이 바다미술제 성격 자체를 공모로 한다,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든, 가치적인 문제나 혹은 영구설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전시가 바다미술제니까, 그냥 한 달 동안 구조적인 작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탁

부산 작가이시고 한편으로는 부산을 대변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더 외부적인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시감독

충분히 저는 일부러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작가들을 챙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한 다음번에도 저와 같은 감독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요.

정형탁

물론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을 살린 전시였던 말입니다. 만일 감독제를 하면 반발이 있겠습니까? 공모전

의 특색이라는 것이 작품의 형식을 정해야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감독제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시감독

모든 걸 감독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모의 규격이나 그런 것의 제약은 없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공모작품의 경우 5m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를 크게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최고일 것이고, 인기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형탁

작품의 인기, 대중성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무지 근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인기라는 것도, 대중이라는 것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일단 시대와 불화해야 되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대로 반복하거나 되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백화점에 있는 상품하고 똑 같거든요. 담론들을 제공하는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의지가 묻어나는 전시, 그럴려면 아예 그냥 전시감독제로 몰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다미술제가 내부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공모전도 아니고 한 이런 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애매합니다.

전시감독

그런 것이 또 장점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또 다른 장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또 다른 전시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만 따라가면 고전이나 다른 작품들은 미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 부분에 있는 것들이 거의 70~80%입니다. 참고로 부산비엔날레 본전시, 현대미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엔날레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바다미술제 5~6배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 부산비엔날레에서 그런 섹터가 없다면, 선생님들이 말하시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엔날레가 홀수 해와 짝수 해의 전시의 성격을 좀 더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영준

공모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이번 전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바다미술제가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요. 공모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대로 가자는 것은 너무 거친 논리고, 앞으로 바다미술제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다미술제의 핵심이 공모제도 아니잖아요. 공모제이기 때문에 바다미술제가 특징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다미술제의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미술계 내에서는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 줄어들고 있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살펴나가면서 미술계 내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전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제가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다미술제와 공모전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준희

이른바 미술품 감정을 하다보면 감정상하고,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들고 그렇거든요? 지금 다소 회의감이 드는데, 결국 이 바다미술제의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일단 이번 행사를 진행하신 감독님은 전문 기획자가 아닌 작가이시고, 부산 분이시고, 또 아까 26년된 바다미술제의 역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외부의 3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바

다가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은 곧 바다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 것은 스스로 좀 입지를 좁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에 바다미술제 말고 장소성을 내세운 곳이, 몽산포 해변 모래조각제, 금강자연미술제 등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바다미술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비엔날레에 치여서 자꾸만 부산비엔날레와의 차별화를 두려고 특화시키는 게 더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이, 공모전을 해야 하나?, 감독을 빨리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번 바다미술제 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예술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하고 줄을 세우고 성적을 매긴다는 것의 문제는 개별 작가들의 미학적인 평가를 떠나서, 심사위원을 누구를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판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사무국을 향해서 말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전시성격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바다 그 자체는 큰 장점 없습니다. 송도를 내세웠었는데 거의 99퍼센트 이상이 송도와는 상관 없는 작품이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작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송도는 부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웬만한 바닷가에는 소나무와 솔밭이 있기 때문에 송도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자가 내러티브를 설정해서 말을 만들고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자는 기획자 나름대로의 작품을 하고 있고, 작가들은 국제적으로 이래저래 전시가 있으니까 응모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학생들도 공모의 기회가 있으니까 공모를 지원하구요, 이번 같은 경우 백사장에 초대된 작가와 공모전 작가가 함께 놓였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특정 작품을 비방이나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트 태건브이나 강철주먹 이런 작품들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일반인이건, 전문인이건, 미술인을 막론하고 판단을 난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미술적으로 미술인을 위한 행사인지, 일반대중을 위한 행사인지, 그런 성격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입장료를 받고 관객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행사 끝나면 판단하는 것은 관람객수 몇 명이상, 비용대비 얼마나 대외적 효과를 냈는지, 이와 같은 평가로 이 바다미술제가 진행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우후죽순 열리고 있는 다른 진짜 고만고만한 그런 행사와 차별성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날 것 아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바다미술제를 정확히 말하면 부산비엔날레에서 분리시킨 것이 아니고 통합, 단일화시킨 과정이었고, 바다미술제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새로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비엔날레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끌어올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부산비엔날레 내에서 말입니까?

사회자

그렇습니다. 바다미술제가 굳이 부산비엔날레 이름 하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부산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내년에 할 비엔날레도 원래 비엔날레에서 하는 일이고, 그 사이에 쉬면 안되니까 한 번 해보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타 부대행사들은 그동안 정리되었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부대행사로 본다면, 제가 볼 때에는, 부산비엔날레와 분리해서, 바다미술제는 지역에서 선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따로 분리시켜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6억 정도의 행사를 별도의 조직을 만들게 되면 조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엔날레 자체 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분리에서 통합될 때에도 그 정신으로 통합된 것이니까 그 정신은 맞는 것입니다. 바다미술제의 운영이나 조직을 별도로 독립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것은 누가 선택해서 집단이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전체를 담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협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어떨냐는 것입니다

이영준

일단 반대합니다.

전시감독

비엔날레 행사는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는 바다미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부산 내 동호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인력풀이나 하는 것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영준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행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다미술제를 만들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에 찬성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런 식의 얘길 해야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방안이 나오니까 저는 계속 제 주장을 펼칠 겁니다. 어차피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지 좋은 방안을 여러 선생님들이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시감독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 마지막 정리하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시다만, 또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미술인들이 사실, 기획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서울에서 오셨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의 논점은 전시감독제 도입에 따라 종래의 공모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만 별 답은 없었습니다. 일단 기획을 맡고 있는 감독이 이 공모제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잘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감독에게 두되, 심사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가능한 한 전시감독을 미리 뽑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몽주

궁금한 것은 바다미술제를 영문으로 Sea Art Festival로 사용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사무국장

2000년 PICAF 때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손몽주

그럼 그 이전,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미술제의 원형이 되던 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Sea Art Festival이라고 썼으니까 그 이후부터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손몽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한글로는 2013바다미술제인데, 영문으로는 Sea Art Festival 2013이라는 표현이 적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미술제는 바다조각프로젝트라든지, exhibition이라든지 하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고, 페스티벌은 굉장히 넓은 장르를 포함하고 즐거움, 발랄함을 뜻하는데, 논의한 것처럼 Sea Art Festival은 공모전도 아니고 Sea Art Biennale도 아니고, 조각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셨다던 바다미술제의 원형은 분명하고, 그 중간에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Sea Art Festival로 계속해서 미래에 사용할 것이라면, 좀 더 유연하게 새로 선정된 감독의 취향에 따라 또 다른 연출이 있겠지만, 아예 페스티벌이라면 개막식, 폐막식에만 공연을 섭외할 것이 아니라 이번 경우처럼 전시중간에 작품 앞에서 공연이나 무용을 진행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전시와 함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긴합니다. 그 전문가 분들도 오시고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시게 되면 홍보도 더 잘될 것이고 횡수와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감독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에서는 주말마다 작품앞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바다미술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며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면서 작품과 함께하는 것이 이번 전시기획의 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시에서는 개막식, 폐막식에 대부분 공연이 있는데 한달 가량 진행되는 전시에 매스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앞에서 또는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작가들도 좋아했고, 새로워했습니다. 사실, 몇 천만원씩 투자해도 만들지 못하는 무대였고 그런 전시기획이었습니다. 다들 만족했습니다. 바다미술제의 원형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토는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바뀌면 바다미술제가 아니지요. 바다에서 안하면 바다미술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송도에서 할 수 있는 바다의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독에 따라 충분한 유연성과, 다양한 장르를 도입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바다미술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전체적인 구성이 전시와 축제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매주 지역의 11개 문화단체들과 공연, 아트버스, 4개의 인문학 단체들을 통한 이슈 발굴, 작품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작품 앞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번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페스티벌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시와 균형을 맞춰 가는지는 이후에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문학 단체들이 거의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준

그 축제행사를 총괄하신 분이 이승욱 대표인가요?

이승욱

네. 작품앞 공연은 전시감독님이 직접 진행하신 거고 저희는 분수광장에서 공연단체들과 공연하고, 인문학 단체들과 연계해서 8번의 강좌와, 4번의 작가와의 만남, 아트버스, 생활창작 작품전인 프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소통의 측면을 강화시키는 것에, 지역의 단체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행사인 바다미술제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부산비엔날레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부산비엔날레에 대해 어느 정도 리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다미술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중적이고, 환경미술적이다라는 친숙하게 바라보고, 부산미술인들이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더 이상 환경미술에 국한되어 있는, 너무 대중적이지 않는, 지역적이어야 한다는 범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쟁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미술제를 바라보는 관점, 작가 또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전과 공모전의 대립으로만 국한되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합의되는 부분은 전시감독제 도입에서 기획자의 의도를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되게 얘기해서 큰 작품을 덩그러니 놓은 작품이 아니라 첨단적인 작품들, 기획자의 면밀한 고민과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작품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부산미술인들이 참여하겠지만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전 워크샵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바다미술제가 부산비엔날레에서 분리된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비엔날레와 비교 될 때도, 부산비엔날레와 분리되면서 부산비엔날레만의 특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광주나 영화제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행사를 쪼개서, 예산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렇게 통합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한편으로 바다미술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다 더 부산미술인들이 주도하고, 환경미술적 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한쪽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전시감독제를 도입하고, 대중성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이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전시감독제를 부정하는 부분이 없다면, 격년제로 분리된 전시에 대해 다함께 토론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축제부분, 공연부분이 바다미술제 메인 행사의 일부인가요? 부대행사인가요?

이승욱

부대행사인데 저희는 축제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시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객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였고, 정확히 진행된 프로그램은 중앙분수광장에서 공연 포함해서 인문학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유사하게 전시감독이 직접 주관한 10번의 작품앞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7월초부터 일했기 때문에, 전시감독과 함께 메인행사인 전시와 논의할 시간이 많았다면 보다 재미있는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트버스(3회 4팀), 그리고 21개의 공연단체가 참여한 공연이 7회 진행되었고, 개막식에는 3팀의 단체들의 1회 공연과, 인문학 단체들과 12번의 강좌 및 아티스트 토크가 있었는데 좀 더 일찍 논의가 가능했더라면 전시주제와 면밀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만약 메인행사와 함께 부합되어 진행되는 것이라면 에딘버러 축제와 같이 새로운 바다미술제의 상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용중심의 바다축제(sea festival)가 있고 유사하게 송도의 현인가요제가 있는데, 참고로 에딘버러는 클래식 중심이 되고 많은 공연이 진행되는 수준 높은 축제로 만약 바다미술제가 그런 상황으로 가려한다면 의미 있는 시도고 그런 부분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감독

그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당초 전시기획서에 근거하여 작품앞 공연과 홈커밍데이 등 계획이 있었으나 4월말에 전시감독이 선정되었고 곧바로 공모를 진행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품도 제작되어야하고 바빴지만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다미술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이번에 아주 실험적이었는데 한달 동안 이벤트와 작품이 함께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함께 협업하려는 시도는 여러 고민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거기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송도해수욕장에서 2번이나 바다미술제(2011, 2013)를 개최하였는데 그 장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시감독

사실 2011년도에는 바다미술제 전시기획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송정을 제안했으나 보름 뒤에 사무국장이 전화와서 낙후된 서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송도에서 하자고 했으나 저는 반대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지금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송정에서 개최한다면 접근성 등의 면에서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또 10월말 경에는 불꽃축제가 광안리에서 있고, 해운대에서는 영화제, 송정에서는 바다미술제가 이어진다면 더욱 더 국제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도는 반대합니다.

이영준

어떻게 보면 장소는 바다미술제의 정체성과 관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미술제를 보기 위해 해변에 오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해운대니까, 광안리 나왔다가 바다미술제가 하고 있으니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방문했다는 지표를 성과로 얘기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미술제를 또 다르게 사유한다면 해수욕장에서 안했으면 좋겠고 바다가 해수욕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산엔 많은 바다가 있습니다. 청사포 등 부산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바다가 있고 거기에는 공동체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제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조각물을 설치하고 관람객이 많고 그러나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다미술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하는 그런 전시 말입니다. 이번 미술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텔로의 경우처럼 컨테이너를 쌓자 인근 횃집 아주머니들이 장사 안된다고 난리쳤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미술의 존재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이런 반성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스텔로의 명성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횃집의 전망은 막아선 안되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미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꼭 사람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서만 이 전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감독

사실 작품설치 과정에서 코스텔로가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컨테이너 10단이라도 쌓았으면 좋겠다. 제발 송도에서 바다미술제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바다미술제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바다없는 바다미술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네요.

전시감독

그것은 감독을 빨리 선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므로 이것은 전시감독 선정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태풍이 와서 어렵게 설치된 작품들을 조기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아예 태풍없는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몽주

태풍때문에 작품이 일찍 철수되자 아쉬운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동감한다", 오랫동안 바다미술제를 지켜봐오신 분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바다미술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바다미술제 전시 기간 한달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제작, 설치해 놓았는데 해외에서 방문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짧은 전시기간에 아쉬움이 있고 주로 여름, 9월, 간혹 10월에는 태풍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개최하는 것보다, 아예 폐장과 동시에 백사장을 사용하면서 설치기간이 10일밖에 안되었던 것을 설치기간을 넉넉히 두고, 아주 한겨울만 아니면 되니까 12월초까지 전시를 한다는지 하는, 예정대로 하던 그 기간을 고수하지 않는 이러한 방안을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전시감독

설치기간 10일을 정한 것은 장비사용, 인력투입 등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는 2주 가량 진행되었는데 장비 대여료가 하루에 몇 백만원씩 지출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1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작가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시기적인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작업이란 것은 현장에 왔을 때, 설치할 때의 문제이고 작품설치 준비를 해오는 것이 문제지, 설치 준비기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전시기간 4주는 긴편입니다. 2011년에도 3주를 했고, 이번에도 3주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기후상태로는 1년도 할 수 있겠지만 야외에서는 태풍도 올수 있고, 기타 자연의 영향도 받게되어 전시

장을 관리하는 약 20명의 스태프는 영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집니다.

저는 지금도 전시기획을 하고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문기획자는 아니더라도 저 나름대로 이 비슷한 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미술제를 70, 80년대부터 지켜봐왔는데 3주가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설치팀의 경우도 두 달정도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든 저의 생각입니다.

손몽주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바다미술제 전시기간을 늘이면 비용이 부담되고, 올해 6억6천의 예산이 적으면 적고, 기타 작은 행사에 비하면 많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봄부터 준비해서 9월에 오픈했고 그 3주간의 전시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았고, 설치기간이 짧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시감독

또한 3주, 4주정도 되는 전시기간 동안 작품관리 및 유지 보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연에 의한 훼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전시감독의 어떤 전시 컨셉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겠지만, 관람객들은 왜 작품이 훼손되어 있는지 민원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사실 태권V 작품은 매일같이 계속해서 보수가 이어졌던 대표적 작품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향을 고려해 볼때 3주정도 전시기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전시기간에 대한 것 말고 혹시 사무국에서 여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해 검토해본 바가 있나요?

사무국장

비엔날레 전시를 보통 9월에 하고 부산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 거의 1년마다 개최간격이 조직운영과도 연관 있어 9월, 10월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부산에 5개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부산의 입장에서는 여름에 피서객들도 많아서 복잡한 분위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에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조기 종료했지만, 거의 태풍이 와도 전시는 진행됩니다. 2006년의 경우는 거의 두 달 동안 전시를 했고 만약 5월에 개최된다면 부산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니가 이런 것들과도 관계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바다미술제는 늘 이 시기에 개최되어 왔고, 계절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겨울바다가 좋다고, 겨울 바다미술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류병학

스위스에 가면 매년 겨울에 시작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조각 작품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작품들이 한 곳에 한 개 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찾아가서 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바다미술제의 경우 해수욕장을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머릿수도 중요하니까요.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면 냉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더 치열한 기획과 준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시기 같은 경우 늘 태풍에 대해 공포를 떨게 되는데 올해는 박태원감독님이 아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감독, 사무국 모두 스트레스가 심각하지만,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시기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바다미술제 상을 좀 더 새롭게 페스티벌 형식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류병학

요즘 대다수 미술행사를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는 형식이 미디어페스티벌, 음악, 무용, 영상, 공연을 통합하는데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나, 문제는 예산이 수용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어마어

마한 기금의 10배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준희

사실 손몽주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 Sea Art Festival, 부산 바다미술제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이나, 바다나, 미술제나 이것이 문제인것 같고, 그러나 사실 따로 떼놓고 보면 공통점이 없습니다. 부산은 지역성을 강조하고 제2의 도시, 바다길 그러나 바다는 부산에만 바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건 바다미술제의 경우 26년의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스티벌이라 해놓고 큰 작품앞에서 거문고 국악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그 장소에서 그 공연을 했다는 것이, 공연자도 예술가일 것이고, 작가도 그 작품을 내놓은 것인데 그 앞에서 200명, 300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한 것을 이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단순한 이벤트일 뿐입니다. 정말 대중적이구요. 전국에 수십 개의 잡다한 페스티벌 축제들이 무수히 많은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광주비엔날레 오픈식에도 현대무용 공연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바다미술제 정체성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전문가 패널이 모여 이렇게 고민하지만, 미술인들이 앉아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 이벤트, 페스티벌, 문화기획가가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을 논해야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술에 방점을 진하게 찍고, 바다와 부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기, 공모전이건 기획전이건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현재 행사가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비엔날레 자체는 무색무취 아닙니까? 통칭 일반인들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라 생각합니다. 그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미술사적, 미술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작가 작품들이지요. 해외에서도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미술제에서는 관객이 미술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놀러왔다가 작품을 보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의 관람객이 많이 방문했다는 평가는 에버랜드, 또는 롯데월드 그런 곳에 가서 해야합니다. 사진도 찍으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미술은 아닙니다.

심준섭

2006년도 현대미술전에 참여하고, 2013년도에 박태원 감독님의 바다미술제에 참여한 작가로서 옛날을 기억해보면, 2006년도에 박만우 감독님이 기획하셨을 때 주제에 대한 담론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온천천에서 진행된 카페 전시가 기획되었는데 하나의 이벤트적 효과였습니다. 전시의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면서 현대미술의 담론 또는 현대미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업하다보니 개인적인 전형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미술제 소개를 듣고 나서 저는 대중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면 외부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자연적 특성, 견고성, 상징성과 같이 작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목적을 맞추다 보면 바다미술제가 가져야 하는 특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바다미술제가 가진 해양의 특성과 상징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져야 할지가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제임스 잭 작품을 보고 나름 놀랐습니다. 작품을 찾아다녀야 하고, 직접 들어야 하는 자체가 지역과의 상호소통으로 보여지고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소통해야 할지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독이든 차기 감독이든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영준

바다미술제의 원형, 지역미술인들이 발견한 것은 화이트큐브를 벗어난 장소였습니다. 그 정신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방법을 본 것이지요. 방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바다를 발견해서 지속해서 바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다미술제는 바다에서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트러스의 의미는 장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늘 미술이 존재해왔던 곳에서 미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발견인 것입니다. 그 정신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사실 바다는 조각을 놓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작품만 설치하는 것이 미술제의 특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하고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형탁

사실 사무국의 사무국장, 전시팀장, 홍보팀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내부적인 한계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문제도 많았을텐데 내부적인 워크샵을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저희는 부산비엔날레전, 바다미술제전 이런 전시들이 오늘의 워크샵을 통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면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반성은 늘 하고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손몽주

아무튼 바다미술제가 미술제이고 작가들에 의해 준비되는 전시인 만큼 소심하게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작가들은 작업사진 한 장과 팜플렛 밖에 남는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완성작이 안 찍혀 있고 좀전의 PPT에도 3D 이미지가 실려 있고 대상을 수상한 조은필 작가 작품은 덩어리가 찢린 채 부분이 실려있습니다. 제 사진은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정리를 못하셨을까 싶은데 예산과 늦은 전시감독 선정 문제와 연결되었지만 작가이다 보니 도록 한권이 더 눈에 들어오고 알뜰하게 정리되지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전시가 더 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회자

오늘 지역적인 것을 두고, 바다미술제의 상을 새롭게 잘 잡아가야겠습니다. 이 상을 제대로 잡으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바다미술제라는 말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 평범하게 들리지만 외국에서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부산에서 바다미술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이른바 항구도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부산만한 곳이 없구요 송도, 해운대, 광안리, 송정과 같이 도심과 연결되는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술제를 우리가 정말 빛나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를 본 소감은 바다미술제 자체도 일종의 야외미술전인데 야외에 작품을 설치한다는 것은 과거의 조각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내의 것도 야외에 두면 야외미술전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야외라는 조건, 환경과 배경을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다미술제는 단순한 야외조각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작품을 해석하고, 또 바다를 끌어들이는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은 실내에 놓여도 무방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앞 바다, 방파제까지 활용한 공간까지 왜 전시마당으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페스티벌이라 하면 축제가 예상되지만 오픈시켜서 바다에서 무언가 퍼포먼스와 같은 페스티벌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제,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여러 논의가 있었고 연구결과로 감독제, 분리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 바꾸기 위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제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컨셉을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분명 일반적인 비엔날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번 토론회가 내 후년에 열릴 바다미술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